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46〉

芙蓉楷禪師小參 (부용해선사소참) ③

爾不見 達磨西來 少室山下 面壁九年
이불견 달마서래 소실산하 면벽구년
二祖至於立雪斷臂 可謂受盡艱辛
이조지어입설단비 가위수진간신
然而達磨不曾措了一辭
연이달마부증조료일사
二祖不曾問着一句
이조부증문착일구
還喚達磨 作不爲人 得麼
환환달마 자불위인 득마
二祖 做不求師 得麼
이조 주불구사 득마

그대들은 보지 못했는가. 달마가 서쪽에서 와 숭산 소림사 작은 방에서 면벽(벽관) 9년했고

2조 혜가스님은 달마 앞에 이르러 눈밭에 서서 팔뚝을 자르니 온갖 간난고초를 다 겪었다 할 수 있음이라

그러나 달마가 일찍이 한 말씀도 들어 보이지 않았고

2조도 일찍이 일구도 묻지 아니 했으니

돌이켜 달마를 불러내 사람들을 위하지 않음을 지음(사람들을 위해 한 말씀도 들지 않음)이 옳은가? 하랴,

2조를 불러내 스승에게 구하지 않음을 지음(일구도 묻지 아니함)이 옳은가? 하랴.

懶庵樞和尙法語 (뢰암추화상법어) ①

山僧 每至說着古聖 做處 便覺無地容身
산승 매지설착고성 주처 변각무지용신
慙愧後人 軟弱
참괴후인 연약
又況百味珍羞 遞相供養
우황백미진수 체상공양
道我四事具足 方可發心
도아사사구족·방가발심
況恐做手脚不迭 便是隔生隔世去也
황공주수각부질 변시격생격세거야
時光似箭 深爲可惜
시광사전 심위가석

산승이 매양 옛조사 성인의 지은 바에 붙여 설법하다가 문득 몸을 용납할 자리가 없음을 깨달으니

후배의 연약함을 참괴하노라.

또 하물며 백가지 맛의 진수성찬으로 서로 공양하되

내게 이르기를 사사(의복·음식·침구·탕약)가 구족해야 바야흐로 발심할 수 있다 하니

다만 손발이 갈아들지 못하매(손을 써 볼 사이도 없이) 문득 생을 격하고 세를 격할까(죽음에 이름) 두려워 하노라.

세월은 화살 같은지라 심히 가엾은 일이로다.

雖然如是 更在諸人 從長相度
수연여시 경재제인 종장상도
山僧 也强教爾不得
산승 야강교이부득
諸仁者 還見古人爲麼
제인자 환견고인위마
山田脫粟飯 野菜淡黃齏
산전탈속반 야채담황미
喫則從君喫 不喫任東西
끽즉종군끽 불끽임동서
伏惟同道 各自努力 珍重
복유동도 각자노력 진중

비록 이와 같으나 다시 여러사람이 장점을 좇아 서로 제도할 것이니

산승이 또 그대들을 억지로 가르치는 게 옳지 않노라(억지로 시킬 일 아니나 부득이 하노라)

어진 이들이여 돌이켜 옛 조사성인의 게를 보았느냐?

'산 비탈 밭의 조를 대강 찧은 밥에 푸성귀 누런 우거지 싱거운 반찬이니 그대 먹겠으면 먹고 못 먹겠으면 내버려두어라'(우두 법융선사의 가풍질문에 대한 답)

엎드려 바라건대 도반들이여 각자 노력하고 노력하라.

여러사람이 장점 좇아 서로 제도하고 스스로를 가볍게 여겨 뒷걸음질 말라

佛 誡羅睺羅頌 云
불 계라후라송 운
十方世界諸衆生 念念已證善逝果
시방세계제중생 념념이증선서과
彼既丈夫我亦爾 何得自輕而退屈
피기장부아역이 하득자경이퇴굴
六凡四聖 同此一性
육범사성 동차일성
彼既如是 我何不然
피기여시 아하불연

부처님께서 라후라존자에게 감계로 준 게송에 이르기를, 시방세계 일체 중생이 생각생각에 이미 선서과(불과·열반에 들어 다시 오지 않음)를 증험하니 저가 이미 대장부요 나 또한 그러한지라 어찌 스스로를 가볍게 여겨 뒷걸음질 칠 것이랴 하시니,

육범(육도중생) 사성(성문·연각·보살·불)이 한가지로 같은 성품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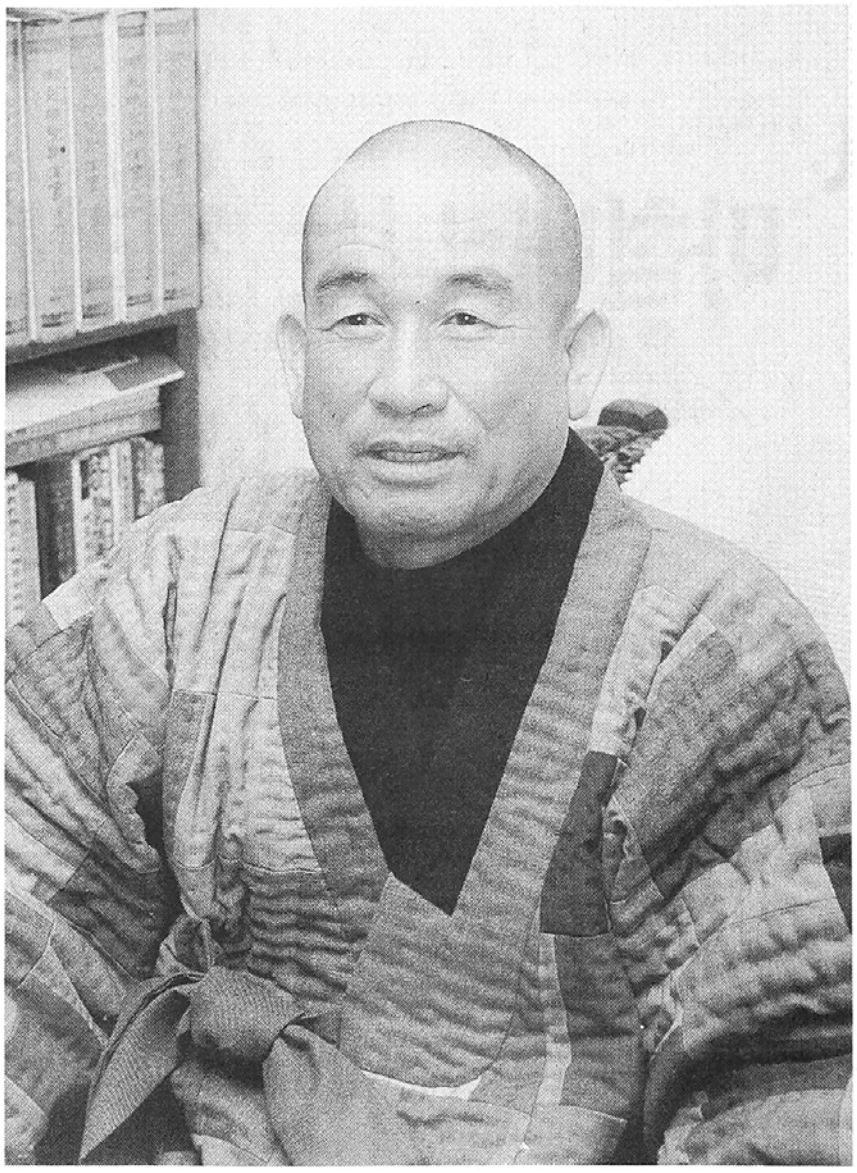
저가 이미 이와같나니 나라고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龍 眼

지상법석

"살면서 오계만 잘지켜도

보산스님 〈화음사 주지〉



약력
- 1929년 生
- 공주사대 졸업
- 일본 경도대학서 문학박사 학위 수여
- 1960년 통도사로 출가
- 〈동양불교사〉 〈불교학 개론〉 〈불타의 이합사상〉 〈불교성전〉 등 지음.

"눈먼 거북이 다리 잃은 자라 업고 협력하며 살듯 중생들 서로서로 부족함 채우는 삶을"

저 관악산 꼭대기에 눈이 내리니 겨울 분위기가 좋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당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지당합니까.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라는 생각속의 눈덮힌 산과 눈덮힌 산을 보는 마음속의 겨울이라는 생각이 한데로 어우러져 저런 장관을 보이니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 산과 눈을 보고 겨울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겨울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겨울 안에 있습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괜시리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 드릴까하니 잘 들어 보세요. 저 유명한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산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새는 머리가 둘이다 보니 생각 이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날 밤 나무가지에서 곤한잠을 자다가 한쪽 머리가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아주 맛난 열매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따 먹었지요. 날이 새어 다른 쪽의 머리가 생각하니 다른 때는 아침이면 배가 허했는데 이날은 든든한 기분이 드는게 아주 좋았어요.

"너 내가 잠든 사이에 뭘 먹었느냐"

옆의 머리에게 물어 보니 "그래 자다가 눈을 떠보니 눈 앞에 맛있고 향기로운 열매가 있어서 따 먹었다"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열매를 못 먹은 머리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잠을 자다가 깨어난 한쪽의 머리는 앞에 독이 든 열매가 있는 것을 보았지요. 물론 이번에 미리 눈 뜬 머리는 지난번에 맛있는 열매를 먹지 못한 머리였고요. 이 머리는 곰곰히 생각을 했지요. '네 놈이 전에 맛있는 것을 혼자 먹어치웠으니 이번에 한번 혼나봐라' 그리고 그 머리는 독이 든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그 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중생도 그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저 앞의 산이나 거기 내린 눈이나 눈 위에서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는 겨울짐승들이나 다 한 몸인 것입니다. 한몸에 두개의 머리를 가진 새가 죽을때 한쪽의 머리가 "이 어리석은 놈아 우리는 한 몸이 아니냐. 누가 맛있는 걸 먹던 결국 우리 둘에게 이로운 것임을 왜 모르는 것이냐"라고 한탄을 했다고 하듯 우리 중생들도 나와 너를 지나치게 구별해서 서로의 이익에 눈이 멀어 서로 죽이고 짓밟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겨울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물음이 얼마나 쓸모 없는 것인가를 아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인 채로 사계절을 보내고 일년 열두 달을 보내며 살아갈 뿐입니다. 서로 다른 몸이 아니라 한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잘 알고 그렇게 행동 하느냐 하는 차이에서 행복의 두께가 달라 질 뿐입니다.

이야기를 좋아 하시니 〈열반경〉의 이야기 한 꼭지를 더 하겠습니다.어느때에 옥추산이라는 커다란 산이 무너졌습니다. 그 바람에 산 아래 개울에 살던 거북이는 돌에 맞아 눈을 잃었고 자라는 다리를 잃었습니다. 거북이와 자라는 다친 곳이 아프기도 하고 배도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눈과 다리가 없으니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저 그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다 이 두 불쌍한 짐승이 서로의 울음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너는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산이 무너 질 때 눈을 잃어 아프고 배고파 운다. 너는 왜 우느냐"

"나는 산이 무너질 때 두 다리를 잃어서 어디로 갈 수도 없으니 배도 고프고 아파서 울고 있다."

서로 딱한 신세임을 알게된 거북이와 자라는 함께 힘을 합쳐 살아 가기로 했지요. 눈 먼 거북이가 자라를 등에 업으니 자라의 눈이 거북이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지요. 두 짐승은 개울을 오르내리며 굶주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때부터 자라는 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 먼 거북이 몰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지요. 그러다 거북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둘은 싸움을 하고 헤어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헤어져서 살 수 있는 처지였나요. 둘은 며칠을 굶주리다가

1996학년도 신입생 모집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영연방 대학소속의 세계적인 명문 스리랑카 정규 불교대학교의 학위 과정을 국내에서도 이수하게 됩니다."

강의는 국내에서, 졸업은 스리랑카 본교에서
수능시험 응시계열 구분없이 지원 가능

수업연한	학 과	과 목 명	특 전
4년	불교사회철학 (Studies in Buddhist Social Philosophy	① English ② Pali ③ Philosophy(Ⅰ Ⅱ Ⅲ Ⅳ) ④ Buddhist Social Philosophy ⑤ Emergence of Buddhism ⑥ Buddhist Social Institutions ⑦ Early Buddhism ⑧ Buddhist Education ⑨ Buddhist Aesthetic concepts and Arts ⑩ Expansion of Buddhist Culture (Ⅰ Ⅱ) ⑪ History of Indian Buddhism ⑫ History of Korean Buddhism. etc.	①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커리큘럼과 학사일정에 따름 ② 졸업후 영연방 및 외국의 모든 대학원에 유학 가능함. ③ 지방에서도 통신에 의해서 학위과정 이수가 가능함. ④ 어학 연수 가능 ⑤ 승려는 장학금 지급 ⑥ Computer 교실 운영

- 모집인원 : 80명(주간 : 40명 야간 : 40명) 통신생 약간명
- 입학자격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타종교인도 가능)
- 전형방법 및 일시
  ①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무시험 전형) ② 면접 : 1996년 3월 15일 13시
- 원서접수 및 교부 (우편도 가능)
  ① 96년 1월 19일 (금) ~ 96년 3월 9일 (토) 17시까지
  교부 및 접수 :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 제1학사 관리처 2층
- 문의전화 : (02) 424-6637~8 / FAX : 424-6639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한국학사관리처

海東佛敎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승속·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 영어(필수)·해당지역언어·불교 전반
■ 시간 : 매주 火·水·金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통신도 가능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5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 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 : 741-0495~6 / 팩스 : 763-4603

海東佛敎大學
학 장 장이두
대학원장 김지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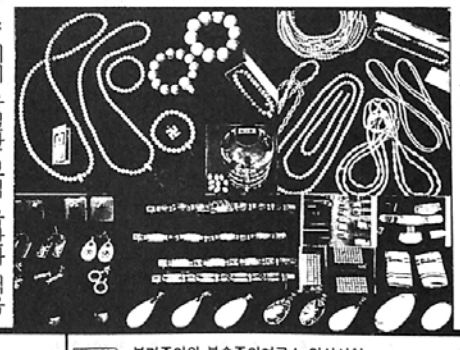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류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연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온반지 84%, 온목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졌다 ('93. 2. 17)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선입견 과학자의 판단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吳是空 合掌